

역대 가장 빠른 '독감주의보' 발령

질병관리본부가 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한 2009년과 이에 따른 여파가 지속된 2010년(10월10일)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이른 시점이다. 지난 2016~2017절기 발령 시점 12월8일과 비교하면 일주일가량 빠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지난 47주(11월 19~25일)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7.7명으로, 올해 유행기준(6.8명)을 초과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에 따라 매년 유행 기준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7~12세가 외래환자 1000명당 15.1명으로 가장 높고 이어 ▲13~18세 13.8명 ▲1~6세 10.5명 ▲0세 7.8명 등순이다. 영유아·청소년 의사환자가 ▲19~49세(7.6명) ▲50~64세(4.3명) ▲65세 이상(2.1명) 등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감기예방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독감환자는 공공이용시설 자체하기 ▲아픈 아이는 학교 보내지 않기 등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진료 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면서 수분·영양 섭취해야 한다"며 "증상 발생 후 5일이 지나 체온이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유행기에 앞서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접종도 아직 늦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정부 지원 대상인 6~59개월 영유아와 65세 이상 노인도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 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환자 공공장소 방문 자제·손씻기 등 실천

유행기 진입했지만 예방접종 여전히 유효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위험성이 더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절기별 유행주의보 발령시점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이래 신종플루가 유행한 2009~2010년을 제외한 12월에 발령

된 것은 2005~2006절기(23일·9.63명), 2008~2009절기(8일·3.6명), 2016~2017절기(8일·13.3명) 올해까지 4차례뿐이다. 나머지는 주로 1월에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감염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되

는 것이냐"라며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빨리 찾아오면 그만큼 종료 시점도 앞당겨지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행주의보를 결정하는 기준이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이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민감도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과거 5년간'으로 개선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



산타가 된 산악인의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20여 일 앞둔 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수락산 하강비위에서 기승기벽 암벽 전문 산악인 삼견식 대장을 비롯한 등산대원들이 산타복장을 하고 '꿈과 희망을 찾는 도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인공등반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 실내유입 막는다" 환기설비 기준 강화

미세먼지가 유입돼 실내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내 환기를 위해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외부 유입부에 설치하는 공기여과기(필터) 성

능 기준이 강화된다.

자연환기 설비인 경우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인다. 기계환기 설비는 현행 60%에서 80%로 높였다.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 공기와 바꿔주는 장치인 환기설비는 동력 여부에 따라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로 구분된다.

또한 기계환기설비에 HEPA필터 등 고성능 필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필터 측정방법 및 기준을 마련했다. 각종 필터에 대해 한국산업규격(KS)에서 규정한 표준화된 시험방법으로 입자크기에 따라 중량법, 비색법, 계수법(신규)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완도해경, 동절기 도선 안전관리 강화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12월부터 내년 2월 까지 3개월간 '동절기 도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8일까지 관내도선 6척 및 주요선착장 14개소에 대해 파출소 및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의 소화설비(소화기 등) 관리 상태와 난방기, 전기설비 등의 화재 취약개소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업자 및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동절기 장비 점검 강화 ▲도선 승·하선 시 낙상 예방 등 겨울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신분증 제도 화 ▲안전수칙 준수 등의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바닷가재 집게에 새겨진 '웹시콜라 로고'

캐나다 해안에서 웹시콜라 로고가 새겨진 집게를 가진 바닷가재가 발견됐다.

이를 두고 해양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캐나다 동남부 뉴브런즈윅주 그랜드마넨섬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카리사 린드스탠드는 지난 11월 21일 어선 상자 속에 적재돼 있던 바닷가재의 집게에서 이상한 문양을 발견했다.

하루에 12칸의 콜라를 마시는 린드스탠드였기에 쉽게 그 문양이 웹시의 로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웹시 로고가 찍힌 바닷가재의 집게를 사진으로 찍은 뒤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 바닷가재는 뉴브런즈윅주 일대 레스토랑 등으로 팔려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동료들은 어떻게 웹시 로고가 바닷가재의 집게에 붙어 있는지를 놓고 일주일 이상 설왕설래 했다. 그러나 로고가 새겨진 경위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한가지 추측 가능한 것은 해양폐기물 증가로 인한 폐해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가디언은 전 세계에서 해마다 50만에서 1300만개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에 폐기되고 있고, 이를 바닷새와 물고기 등이 먹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 옐런 맥아더 재단은 2050년이 되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이 떠다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발리 화산지역서 지진 이어져

분화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발리 아궁화산 지역에서 지진이 이어져 대륙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호주 매체 퍼스너우 등은 3일 아궁화산 주변 지역에서 전날밤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한 후 밤새 여진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일 인도네시아 화산지질피해완화센터는 성명을 통해 지난 9월과 10월 이후 아궁 화산 주변 지역의 지진활동이 감소했다면서 화산의 마그마가 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는 보다 넓은 통로가 존재하는 듯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2일 다시 지진활동이 늘어나면서 화산활동이 매우 활발해져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기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짜 펭귄 가져다놓은 中 동물원

뒤뚱뒤뚱 걸어가는 살아 있는 펭귄을 볼 생각에 부푼 마음을 갖고 찾은 동물원에 펭귄 모양의 바람풍선만 가득하면 기분이 어떨까.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위린 시에 처음으로 동물원이 생겼다.

구이산 동물원은 희귀 동물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야생동물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며 홍보했다. 주말에 '특별전시'를 한다는 홍보 포스터에는 펭귄 타조, 공작새 등이 그려져 있었다. 입장료는 15위안(약 2463원)이다.

기대를 안고 동물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실망감을 숨길 수 없었다. 펭귄 우리에는 살아있는 펭귄 대신 펭귄 모양을 한 바람풍선 5~6개가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은 위챗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걸 동물원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나는 아직도 동물원에서 받은 충격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美서 하수구 들어간 초대형견 삼형제 구조

미국에서 장난꾸러기 대형견 삼형제가 하수구에 갇혔다가 적극적으로 구조됐다. 덩치 큰 개들이 어떻게 비좁은 하수구에 들어간 건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콜로라도주 제퍼슨 카운티 경찰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마스티프 견공 3마리가 하수구에 갇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마스티프는 몸집이 80cm나 되는 초대형견이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하수구와 도로 사이에 난 틈으로 두 눈을 껌뻑거리며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마스티프 3마리를 발견했다. 하수구는 원형 부분이 지상으로 약간 돌출돼 있고 측면에 긴 틈이 나 있는 구조였다.

구조대는 하수구의 동그란 뚜껑을 열어 개들을 끌어냈다. 다행히 몸이 상한 개들은 없었다.

개들은 모두 주인에게 무사히 돌아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제는 **평창**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ongyang 2018
PyeongChang 2018